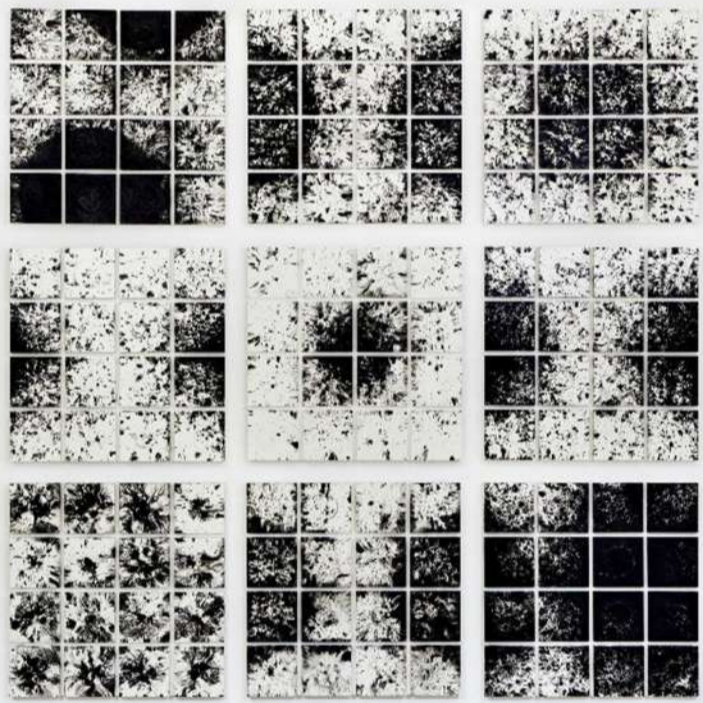


CARTE BLANCHE À PARK DONG-SOO

5.24-9.18 파리,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
-김진 크랑스 출신인 -이머시 작가 세움

지금 여기, 박동수

한국 작가 박동수의 작품이 프랑스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Muse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이하 기메 박물관) 4층 아레키 단독전시실에 선보이고 있다. 기메 박물관은 기메 남부에 위치한 기메 박물관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아시아 예술 컬렉션 중 가장 큰 곳이다. 2015년부터 6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11월 15일 기메 박물관은 특별 전시하는 '카르 블랑슈(Carte blanche)'를 박동수의 전례 없는 프로젝트 오프닝이다. '카르 블랑슈' 전시 프로젝트는 2021년 11월 15일, 4면에 걸친 아레키로 2021년 11월 15일 시작되었다.



1. Carte blanche 2022 Paper de riz, encre de soie, acrylique, encre sur bois 55x93x10cm

106



2. Carte blanche 2022 Paper de riz, encre de soie, acrylique, encre sur bois 55x93x10cm

유난히 확장했던 7월 초 아레키 기메 박물관을 찾았다. 4층 아레키 동양 박물관의 전장은 높은 단독전시실에는 대형 흑색의 캔버스 여러 개와 길고 얇고, 때로는 연한 곡면벽을 뚫고 들어온 원형 구조로 '지금 이 곳(Cette place là)'이라는 이름을 달고 전시되어 있었다. 낮은 조도와 넓지 않은 편지, 높은 천구형 지붕 덕분에 흑색의 설치 작품은 단숨에 감상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시간대에 시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그런가 하면 전시실 중앙에는 검은 사각형들의 배열이 이루어진, 마치 피라미드의 같이 중앙으로 관주류 정렬을 가져오는 설치작업이 자리하고 있다. 이 작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시각의 인터페이스를 찾을 수 있다. "조각기부터 항상 세상을 표현하고, 그것이 종료되는 순간을 확고하게 느꼈다." 박동수의 피라미드 조형예술을 전공한 박동수는 우주의 광활 기원과 행성의 움직임을, 확실히 작업 등에서 영감을 받아 시간과 공간, 에너지 그리고 우주의 세계를 지배하는 끝없는 선의 움직임에 대해 탐구해왔다. 이와 더불어 인공의 생명체의 역사까지 주제를 이어간다. 이번 기메 박물관 특별 전시에서도 이 테마를 가지고 여러 작품을 통해 하나의 세계를 고안했다. 이는 손으로 보아야 채우고 상호작용하면서 온전한 의미를 내포하고, 감상자들이 깨어난 한순간의 시점과 그 당시 풍경을 대면시키는데 그것이 주주기 탄생하는 순간인 비명을 안아주고 싶은 감정을 담은 열아홉살이다. 큰고 배근하게 잘라진 듯한 검은빛의 사각형들이 우주 탄생의 순간과 폭발의 순간 사방으로 확장되는 형태를 상기시키는 한편 이들의 표면은 15억 미생들을 한데 걸로 보는 듯 원시적 형태의 양각들로 뒤덮여 있다. 비생물이란 생명체의 가장 기초적인 시작점이다. 이로써 작품 <Cete place là>는 우주 탄생의 순간이 유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시간대의 창조 현상임을 밝혀서 그 긴 시간을 거슬러 감성자들은 그 웅장한 순간에 대면시킨다.

박동수는 드넓은 우주로부터 아주 미세한 공간의 환경까지도 탐구하여 빛과 원자, 이온, 나뭇잎의 재료로 표현해낸다. 그가 재현한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리는 것이면서도 무한한 우주다. 각각의 구성들은 우주의 탄생에서 탄생시킨 일의 역학이 따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동시에 온전한 장소를 표현한다. 그는 명확하면서도 불명확한 설치 구성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탄생부터 지배되어 온 원과 진화에 대해 질문한다. 결국 작품 앞에서 행성과 사색을 놓고 물어 그의 주제가 우리 인류의 역사이며, '휴머니즘'으로 이어질 것을 제안해 낸다.

앞서 작품을 보며 보니 전시실에 들어온 감상자들은 현호 비엔 차대에 놓인 검은색의 돌그늘 밑에서 앉아서 그 지역의 농촌에서 작품을 보고 있

을 볼 수 있었다. 우주 탄생의 행성의 장점을 첫 번째 줄에 앉아 관람하는 기분일까? 우리가 의도한 것이었다면 이는 아직 현재시 중립되지 못한 비스타의 순간이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지속되어왔고 그 원형이 감성 자극 데려다 놓은 것일 것이다.

작품을 감상하고 나오면 기메 박물관 아레키에서 이어지는 꼭두에 작가의 직접 현장과 인터뷰를 보여주는 TV가 있다. 화선이 폭발하여 휴머니즘 비스타가 넘어 감동적인 경험의 과정일 것이다. 섰던 조각은 작가가 나무에 한지를 붙이고 벽과 아크릴을 이용해 끊임없이 색을 입히고 붙잡아 줄러 내리게 하는 반복 작업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신랄하고 있었고, 그 작업 과정과 그의 예술철학에 대해 질문을 수 있다. TV 앞에 걸려진 2인용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사람이 두 번 연속 우의 관계 보여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같은 줄 전시실에서 '흔들림'이란 뜻 '작가를 주었던 작품을 먼저 보며다 제자랑했던 바보' 그들이 해, 우리가 해, 여기, 이 순간에 있게 되었는지 그 기원의 본질과 원인이 대한 호기심과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박동수의 전시는 9월 18일까지 파리 기메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②



3. Carte blanche 2022 Paper de riz, encre de soie, acrylique, encre sur bois 55x93x10cm

4. Carte blanche 2022 Paper de riz, encre de soie, acrylique, encre sur bois 55x93x10cm

